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
위 및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 (2)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
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
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 (3)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
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 (2)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 (4)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 후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9월 10일 (화) 기도 담당 : 김계주 집사

2019년 9월 9일 (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391장 다 같 이
기 도 우도현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겔 24:19-23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죄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김명자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79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4:19-23>

19.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22.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9월 9일 (월)

저희들의 전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진 택한 백성들의 모습에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이 모습들이 그 옛날 유대인만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날마다 저희들 자신의 언행심사를 면밀하게 살피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인지 분별케 하시며, 분별한 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새문안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132년간 복음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이곳에 드나들며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육이 강성하게 하옵소서. 건축과 관계하여 아직 미진한 부분들도 속속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 나가실 수 있는 지혜를 더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 작금의 조국의 현실을 외면치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만, 이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나의 유익을 구함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